2022년 상반기 일본세관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단속실적

- 상반기 수입금지 건수가 11년 연속 1만 2천 건 초과-

일본 재무성은 2022년 9월 9일 전국세관의 2022년 상반기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단속실적을 발표하였다.

1. 총괄

수입금지 건수[1]가 12,519건으로 전년동기대비 14.3% 감소하였으나, 11년 연속 1만 2천 건을 초과하는 등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수입금지 수량[2]은 404,684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4% 감소하였으나, 2년 연속 40만 점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관에서 1일 평균 69건, 2,235점 이상의 지적 재산권 침해 물품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연도별 지재권 침해 물품 단속실적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1년 상반기	**2022년 상반기**	**증감(%)**
건수(건)	23,934	30,305	28,270	14,611	**12,519**	**△14.3**
수량(점)	1,018,880	589,219	819,411	461,992	**404,684**	**△12.4**

2. 수출국가별 수입금지조치 실적

수입금지 건수로 보면 중국이 9,131건, 전체 수입금지 건수의 72.9%로 여전히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동기 대비 22.2% 감소하였다. 그 다음으로 베트남이 1,201건(전년 동기 대비 15.3% 감소, 구성비 9.6%), 대만이 634건(전년 동기 대비 860.6% 대폭 증가, 구성비 5.1%), 필리핀이 395건 (전년 동기 대비 35.2% 감소, 구성비 3.2%) 등이다.

수입금지 수량으로 보면 중국이 278,321점으로 전년동기대비 21.0%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전체 수입금지 수량의 68.8%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홍콩이 46,676점

1) 수입금지 건수는 세관이 수입 금지한 지적재산 침해 물품이 포함되어있는 수입신고 또는 우편물 수이다.
2) 수입금지 수량은 세관이 수입 금지한 지적재산 침해 물품 수량이다.

(전년동기대비 91.0% 대폭 증가, 구성비 11.5%), 베트남이 37,006점(전년 동기 대비 23.2% 감소, 구성비 9.1%), 싱가포르가 18,152점(전년 동기 대비 1157.9% 대폭 증가, 구성비 4.5%) 등이다.
수입금지 건수와 수량 모두 중국의 구성비가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2) 주요 국가별・연도별 수입금지 건수 추이(건)

	2019년	2020년	2021년	2021년 상반기	**2022년 상반기**	**증감(%)**
중국	19,814	25,828	21,885	11,733	**9,131**	**△22.2**
베트남	545	1,374	3,033	1,418	**1,201**	**△15.3**
대만	70	115	209	66	**634**	**860.6**
필리핀	691	635	1,112	610	**395**	**△35.2**

(표3) 주요 국가별・연도별 수입금지 수량 추이(점)

	2019년	2020년	2021년	2021년 상반기	**2022년 상반기**	**증감(%)**
중국	595,421	410,405	615,539	352,385	**278,321**	**△21.0**
홍콩	60,056	58,157	38,554	24,444	**46,676**	**91.0**
베트남	7,577	28,621	91,303	48,214	**37,006**	**△23.2**
싱가포르	4,486	4,703	8,706	1,443	**18,152**	**1157.9**

3. 지식재산권 종류별 수입금지조치 실적

수입금지 건수로 보면 위조 상품 등 상표권 침해 물품이 11,959건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15.9% 감소하였으나, 전체 수입금지 건수의 94.6%로 여전히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위조 캐릭터 물품 등 저작권 침해 물품이 392건 (전년 동기 대비 23.7% 증가, 구성비 3.1%) 등이다.

수입금지 수량으로 보면 상표권 침해 물품이 265,412점으로서 전년동기대비 22.5% 감소하였으나, 전체 수입금지 수량의 65.6%를 차지하여 여전히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다음으로는 저작권 침해 물품이 74,527점(전년 동기 대비 20.7% 증가, 구성비 18.4%) 등이다.

(표4) 지적 재산권 종류별 수입금지 건수 구성비 추이(%)

	상표권	저작권	의장권	특허권	부정경쟁방지법
2021년 상반기	96.3	2.1	1.1	0.5	0.0
2022년 상반기	94.6	3.1	1.3	1.0	0.0

(표5) 지적 재산권 종류별 수입금지 수량 구성비 추이(%)

	상표권	저작권	의장권	특허권	부정경쟁방지법
2021년 상반기	74.2	13.4	10.4	2.0	0.0
2022년 상반기	65.6	18.4	10.0	6.0	0.0

4. 품목별 수입금지조치 실적

수입금지 건수로 보면 지갑, 핸드백 등 가방류가 4,126건(전년 동기 대비 10.3% 감소, 구성비 27.6%)으로 가장 많으며, 그다음으로 의류가 3,348건 (전년 동기 대비 35.4% 감소, 구성비 22.4%), 구두류가 2,044건(전년 동기 대비 16.6% 증가, 구성비 13.7%), 시계류가 1,188건(전년 동기 대비 38.0% 증가, 구성비 8.0%) 등이다.

수입금지 수량으로 보면 의약품이 56,466점(전년 동기 대비 237.0% 대폭 증가, 구성비 14.0%)으로 가장 많으며, 그다음으로 이어폰 등 전기제품이 51,988점(전년 동기 대비 35.2% 감소, 구성비 12.8%), 의류가 37,991점(전년 동기 대비 38.9% 감소, 구성비 9.4%), 가방류가 26,132점(전년 동기 대비 13.0% 증가, 구성비 6.5%)등이다.

(표6) 품목별 수입금지 건수 구성비 추이(%)

	가방류	의류	구두류	시계류	휴대전화 및 부속품	모자류	기타
2021년 상반기	27.2	30.6	10.3	5.1	3.6	4.5	18.7
2022년 상반기	27.6	22.4	13.7	8.0	5.8	3.7	18.8

(표7) 품목별 수입금지 수량 구성비 추이(%)

	의약품	전기제품	의류	가방류	컴퓨터제품	천제품	기타
2021년 상반기	3.6	17.4	13.5	5.0	5.9	6.6	48.0
2022년 상반기	14.0	12.8	9.4	6.5	5.8	3.0	48.5

5. 수입형태별 수입금지조치 실적

수입금지 건수로 보면 우편물이 10,880건으로서 전체 수입금지조치 건수의 86.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동기 대비 18% 감소하였다. 또한, 일반화물은 1,639건으로서 전년동기대비 21.4% 증가하였으며, 전체 수입금지 건수의 13.1%를 차지하고 있다.

수입금지조치 수량으로 보면 우편물이 241,163점으로 전년동기대비 30.5% 증가하였으며(구성비 59.6%), 일반화물은 163,521점으로서 전년동기대비 41.0% 감소하였다(구성비 40.4%).

※ 국문본 출처 : 관세법인 신대륙 회장 천홍욱
※ 일문본 출처 : https://www.mof.go.jp/policy/customs_tariff/trade/safe_society/chiteki/cy2022_1/index.html